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37호 / 06월 13일

금년도 중국의 失業問題 전망 및 대책

1. 개요

- 금년에 중국의 도시실업률은 정리해고자 등 기존의 실업증가 요인 이외에 사스 발생으로 인해 연초 목표치인 4.5% 이내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몇 년간 정리해고자(下崗)의 재취업 감소는 실업자 급증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금년의 신규 노동력 증가도 700만 명에 달할 것임.
 - 사스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신규 노동력 수요 감소, 기업의 감원 증가 등이 예상됨.
- 중국정부는 사스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년 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산업간 균형발전, 노동시장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직업교육 강화, 사회보장체제 정비 등과 함께 기업의 부당해고 방지,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중국의 실업문제 현황

- 2002년 말 도시지역 공식실업률은 4%, 실업자 수는 710만 명에 달함. 그러나

금년 구직자는 공식 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정리해고자 610만 명과 신규노동력 700만 명,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잉여노동력, 기타 실업인원 등을 감안할 경우 2,000만 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 첫째, 도시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정리해고자(下崗)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o 작년도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정리해고자중 재취업을 하지 못한 인원은 각각 410만 명과 200만 명에 달함.
- o 정리해고자 재취업자는 1998년 609만 명(50%)에서 2001년 227만 명(30%)으로 크게 감소함.
- 둘째, 금년 도시지역 신규 노동력은 7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 유입은 구직난을 크게 가중시킴. 농촌 취업인구는 3.6억 명 정도로 전국 취업인구의 50%에 해당됨.
- o 현재 중국은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농촌 잉여노동력을 비농산업(非農産業)과 도시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하며, 매년 비농산업 분야에 1,0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함.
- 넷째, 제대군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업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자 등 잠정 실업자 증가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됨.

□ 특히 금년에는 사스로 인한 신규 노동력수요 감소, 기업의 감원조치 등이 겹쳐 연초 목표치인 실업률 4.5%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금년 1/4분기 도시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75만 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0.4% 포인트 증가한 4.1%를 기록함.
- 중국노동학회 양이용(楊宜勇) 부비서장은 사스 통제가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사스의 중국경제에 대한 과급효과가 제한적이며, 금년 취업문제 역시 낙관적이

라고 전망함.

- 양 부비서장은 금년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7%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도시에서 7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4.5% 수준에서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관리학원 정공청(鄭功成) 교수는 사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4.5% 실업률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정교수는 사스로 인한 일부 지역의 취업확대 계획(가령 3차산업 발전계획 등) 추진 지연과 기업의 기존 발전계획 유보를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으로 제시함.

3. 실업 감소의 제약요인

- 실업자 증가는 농촌노동력의 도시이동과 정리해고자 증가, 3차산업 집중 육성,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음.
- 첫째, 도시 취업난은 지역간의 분할된 노동시장이 점차 통일된 노동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노동력의 도시 유입이 증가하면서 더욱 가중됨. 또한 국유기업과 향진기업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정리해고자 발생으로 실업자가 증가함.
- 둘째, 정보통신 산업 등 고급기술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켜 실업증가의 원인이 됨.
- 특히 1995년 이후 제조업 종사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바, 1995년 9,803만 명에서 2001년 8,083만 명으로 감소함.
- 제조업 종사자의 감소는 국유기업 개혁, 향진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감원 이외에 기술진보와 정보기술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응용으로 단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표3-1> 중국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과 각 산업증가액의 GDP내 비중

단위: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종사자, 증가액/GDP		종사자, 증가액/GDP		종사자, 증가액/GDP	
1991	59.7	24.5	21.4	42.1	18.9	33.4
1992	58.5	21.8	21.7	43.9	19.8	34.3
1993	56.4	19.9	22.4	47.4	21.2	32.7
1994	54.3	20.2	22.7	47.9	23.0	31.9
1995	52.2	20.5	23.0	48.8	24.8	30.7
1996	50.5	20.4	23.5	49.5	26.0	30.1
1997	49.9	19.1	23.7	50.0	26.4	30.9
1998	49.8	18.6	23.5	49.3	26.7	32.1
1999	50.1	17.6	23.0	49.9	26.9	33.0
2000	50.0	16.4	22.5	50.2	27.5	33.4
2001	50.0	15.2	22.3	51.1	27.7	33.6

- 셋째, 고급인력 부족, 동부와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통산업과 국유기업 위축 등 구조적 문제가 실업증가의 원인이 됨.
- o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국 7,000만 명의 산업근로자 중 초급근로자와 중급근로자가 각각 60%와 35%를 차지하여 고급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o 정부가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지역과 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은 중서부와 중소도시 지역의 취업난을 유발함.
- o 전통산업과 국유기업의 비중 축소에 따른 단순 인력의 실업이 증가함. 1992년 도시 공유제 부문 종사자는 1억 4,510만 명으로 81.2%에 달했으나, 2001년 현재 이 부문 종사자는 3,351만 명으로 37.3%에 불과함.

□ 최근의 실업 급증은 사스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이 주요인으로 작용함.

- 첫째, 기업들은 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여 투자 유보와 고용인원 감원 등을 실시함.
- o 사스로 인한 피해기업이 주로 노동집약적 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수요는 더욱 감소할 수 있음.
- 둘째, 기업은 재직 인원에게 대해서도 근무시간 단축, 강제휴가 등 조치를 취하

고 있음.

- 셋째, 일부 기업은 사스를 빌미로 노동계약을 파기하고 임금표준을 낮추어 노사관계 악화를 야기함.
- 넷째, 구직자는 취업기회 감소 외에도 취업박람회 취소 등으로 인해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섯째, 특히 농민노동자, 정리해고자 등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음.

4.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

□ 중국정부 산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취업확대를 위해 산업간의 균형 발전, 노동시장 자유화, 서비스산업 육성, 직업교육 강화, 사회보장체제 정비 등을 강력히 건의함.

- 첫째, 취업확대를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의 균형 발전,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가공업의 규모와 질적 제고 등이 필요함.
- 둘째, 정부는 노동력 이동의 제한과 도시주민 우선고용 등의 조치를 폐지하여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취업정보 제공 수준을 제고해야 함.
- 셋째, 관광, 교육, 위생, 문화산업 등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부문의 발전을 촉진해야 함.
- 넷째,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함.
- 다섯째, 양로, 실업,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제도 완비를 통한 실업자의 생활보장이 시급함

□ 중국인민대학 정공청 교수는 특히 사스 상황하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으로 철저한 사스확산 대책 수립, 기업의 부당감원 금지, 서비스산업 육성,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 등을 제시함.

- 특히 공공시설 확충, 공공서비스업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피해가 심각한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실시를 주장하고, 특수국채나 복권발행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건의함.(***)